

연희동 일대 차이나타운 생긴다 (문화일보 1999.09.15)

연희동일대 '차이나 타운' 생긴다

(문화일보 1999.09.15)

화교들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주택과 상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며 상권을 장악하는 한편 개발 마스터플랜을 작성, 연희동 일대에 대한 '차이나타운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4 일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현재 연희동 일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모두 2백 69 가구, 1천 2백 33명. 이는 지난해 초 1백 45 가구, 1천 1백 70명에 비해 가구수가 2배 가까이,인원수는 63명 늘어난 것이다. 주거 인원수 증가폭에 비해 가구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은 화교들이 분가하면서 건물과 땅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화교들이 연희동과 주변 연남동 일대로 몰리면서 지역을 확장하는 이유는 전교생 1천여명의 한성화교중·고등학교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어 자녀교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주로 의류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화교들에게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따라 최근 화교들의 건물신축이 연희동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도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화교들은 당초 서울시에 서울 광진구 옛 뚝섬경마장 인근에 차이나타운을 세우겠다고 땅 매입을 건의했으나 서울시로부터 '불가' 방침이 내려진 후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주변의 주택과 상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연희동에서 S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는 박형인(朴炯仁.44)씨는 “올들어서만 화교들의 주택매매와 상가임대를 10 여건이나 중개했다” 며 “화교들은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변 60 평 이상의 비교적 큰 단독주택을 주로 구입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연희동 인근 마포구 연남동에는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화교들을 주고객으로 상대하는 화교신용협동조합까지 생겨나고 있다.

연희동에서 14 년째 중국음식점 ‘중국원(中國苑)’을 운영하고 있는 화교 담영발(譚永發.57)씨는 “연희동을 한국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해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것이 화교들의 지배적인 의견” 이라며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 이라고 말했다.

담씨는 현재 그동안 음식점 운영으로 번 돈으로 연희 1 동에 단층건평 1 백평 규모의 5 층 건물을 신축중이다. 이곳에 자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화교들의 음식점도 유치해 ‘전문 중국 음식점가’ 를 만들겠다는 것이 담씨의 계획이다.

한편 한·중우호협회는 17 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 차이나타운 개발추진위원회’ 가 ‘서울 차이나타운 개발계획안’ 을 발표할 예정으로, 화교들이 연희동을 전략적인 차이나타운 개발 예정지로 설정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희동 주민 고영성(高英星.67)씨는 “평생 연희동에서 살아왔는데 보름전에

옆집도 화교한테 팔리는 등 주위에 중국인들이 차꾸만 늘어가고 있다” 며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러다가 고향을 몽땅 이국인들에게 내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기사 게재 일자

1999/09/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9091631700201>